

가계부채 두 얼굴... 소비 위축 vs 증가

LG경제연구원 “소비 위축... 경제 위협” vs 유안타증권 “자산증식 레버리지 효과... 구매력 확대”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어 1300조원을 넘어섰다. 과도한 부채가 부담으로 작용해 소비 둔화와 저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 우려가 일반적인 견해다. 하지만 일각에선 빛이 가계 유통성을 확대시켜 지금과 같은 수요확대 국면에선 오히려 소비를 늘릴 것이라 주장도 나온다.

한마디로 가계부채는 상황과 여건에 따라 부담으로 인한 소비 위축을 부르기도 하고, 소비 촉진을 야기하기도 하는 ‘두 얼굴’을 지니고 있다는 취지다.

먼저 국내 경제 전문가들은 대체로 가계부채 증가는 가계의 소비 여력을 떨어뜨려 소비를 위축시킬 것이라 경고를 내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은 1일 ‘가계부채 리스크 변화하고 있다’ 보고서를 통해 급격한 가계부채 증가세가 국내 소비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원은 “가계소득 증가세가 부진한 가운데 부채의 규모가 늘어나면서 리스크가 높아졌다”며 “주택시장 관련 리스크는 줄고 있지만 소비 위축 리스크는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원금 분할 상환이 원칙화되면서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줄어 들고 취약계층이 질이 낮은 대출로 옮겨가면서 이들의 상황이 더욱 어려워지고 내수 소비가 위축될 리스크는 높아졌다”며 “특히, 최근의 상황은 내수 소비 활성화가 관건인 올해 우리 경제 흐름에 상당한 위협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조 연구원은 그러면서 “가계부채 리스크는 전체 가계부채 중 고정금리부 대출의 비중, 분할 상환 대출의 비중



차기정부에 바라는 소상공인 10대 과제 2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차기정부에 바라는 '소상공인 10대 과제' 발표 기자회견에서 최승재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과 같은 몇 가지 지표들이 높아졌다.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작년 가계 평균자산(2016년 기준 3억 6000만원) 증가액은 약 1500만원 정도이나, 평균부채(2016년 기준 6600만원)는 약 399만원의 상승에 불과했다. 정 연구원은 “가계의 소비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는 가구자산, 소득, 부채 등이 있다”며 “자산과 소득이 늘어날 때 소비가 늘어나며 부채보유수준이 높을 때 소비의 증가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채의 보유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측면인 부채의 자산증식 레버리지 효과로 볼 때 구매력을 더욱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 연구원은 또 가구자산과 관련해선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 자산가치 하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부동산 가치에 대한 전망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금리인상 사이클에 진입하면서 매물이 쏟아져 부동산 시장이 주저앉을 것이라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현재 가구당 소비금액을 감안하면 우려가 과도하다는 게 정 연구원의 설명이다.

이어 “주택보급을 측면에 있어서 서울 및 수도권은 추가적인 보급이 진행돼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결국 금리인상에 대한 부담이 별로 없는 동시에 수요가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자산가치는 적어도 하락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연구원은 아울러 원리금상환이 어려운 한계가구와 장기간 유통성 부족가구 비중은 전체의 5%가 채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한국 반도체 성장 지역 하락

KPMG 보고서... 점유율 2014년 36%→지나해 12%

글로벌 반도체 산업 성장에서 중요한 지역을 꼽는 설문조사에서 한국의 점유율이 3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셈이다.

2일 글로벌 종합 회계·컨설팅기업인 KPMG가 세계 153명의 글로벌 반도체 산업 리더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반도체 산업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반도체 매출 증가를 위해 가장 중요한 지역으로 미국이 선정됐다.

미국이 중요 지역으로 선정된 배경에는 사물인터넷(IoT) 및 자율주행차에 대한 기대치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2015년 1위였던 중국은 경제정책이 10년 계획으로 마련돼 산업 성장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과 중국의 경기 침체 등이 원인으로 작용해 한 단계 떨어졌다.

한국의 점유율은 2014년 36%에서 2015년 25%, 지난해 12%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삼정KPMG 경제연구원 김광석 수석연구원은 “반도체 기술력의 상장이었던 미세화(Scaling) 공정이 점차 한계를 맞고 있는 동시에 신종국들의 기술추격으로 저기술 영역의 반도체 산업이 우선으로 점차 잠식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 반도체 산업에 가장 높은 성장 기회를 제공할 분야로는 사물인터넷·자율주행 등 새로운 산업의 성장

으로 미세전자기계시스템이 주목됐다. 반도체 시장 매출을 견인할 동인으로는 무선통신이 선정됐다. 세계적으로 5G 무선통신 시대가 열릴 가운데 5G 기술은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모든 응용시장에서 새로운 혁신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우선순위는 비즈니스영역 다각화(46%)를 꼽았다. 핵심인재 육성(31%)과 인수·합병(M&A·31%)도 중요한 전략으로 고려됐다. 특히 글로벌 반도체 산업 리더들은 M&A의 중요성이 지난해에 비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으며, 스마트폰 평균 판매가격(ASP)의 하락이 향후 3년간 반도체 산업에 가장 큰 위협이 될 것으로 봤다.

매출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57%)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성장률은 1~5% 범위 내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수익성 개선 및 투자에 대한 기대가 제한되고, 반도체 산업이 성숙기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밖에 반도체 산업 리더 49%는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가 고객의 요구와 부합하지 않는 등 효율적이지 않다고 답했으며, 응답자의 40%는 이러한 연구개발 지출이 향후 성장 기회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뉴시스



HP코리아, 기업용 PC 4종 공개

HP코리아가 2일 기업용 PC 신제품 4종을 공개했다.

HP가 이날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간담회를 열고 공개한 신제품은 노트북 1종, 태블릿 1종, 미니 데스크톱 1종, 미니 워크스테이션 1종.

HP엘리트북 x360은 얇은 기업용 컨버터블 노트북이다. 360도 회전이 가능한 화면을 탑재해 업무·공유·프레젠테이션·회의·필기의 5가지 형태로 사용 가능하다. 16시간 30분까지 사용 가능한 배터리를 탑재했다.

사용자별 화면을 볼 수 있게 해주는 HP 슈어뷰 프라이버시 스크린 기능도 장점이다. 자체복구 BIOS인 HP 슈어스타트 3세대를 기본적으로 포함하고

있어 감염 여지를 차단해준다.

태블릿인 HP 프로 x2는 이동성과 성능, 내구성을 강화한 블랙 컬러 제품이다. 165도까지 기울어지는 키스탠드를 장착했으며 원격으로 보안 기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데스크톱인 HP 엘리트 슬라이스는 모듈형 제품으로 별도 케이블 없이 필요에 따른 각종 USB-C 연결 모듈 추가로 사용 가능하다. 밴웬올륨스 오디오 모듈과 주변 잡음을 제거하는 HP 노이즈캔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기본 제공한다.

미니 워크스테이션 HP Z2 미니는 기존 워크스테이션보다 90% 이상 줄어든 크기를 자랑한다. /뉴시스

한국경제가 성장 동력을 되찾기 위해선 잠재성장률 3%,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대 진입, 세계경제 비중 3% 돌파라는 ‘3-3-3’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일 ‘성장판 회복을 통한 중성장 경로 복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한국경제는 성장판이 일찍 닫힌 ‘성장판 조기 폐쇄’에 직면해 있다.

경제성장은 지속되고 있지만 그 속도가 현저히 감소해 1인당 국민소득(GNI)은 2006년 2만달러대 진입 이후 약 10년 동안 3만달러대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고, 세계경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1% 후반대에 머물러 있다.

한국경제 성장 전략... “추격형 바람직”

현대경제연, “성과보상주의 확립 등... ‘3-3-3’ 목표 달성해야”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01~2005년 연평균 4.7%에서 2016~2020년 2.7%로 급락했는데 향후 10년 후에는 1%대 성장률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과거 고도성장을 가능케했던 가계와 기업의 역동성이 약화되고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부채성장 장기화 등이 최근 우리경제가 지닌 주요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이 닫힌 성장판을 열고 중성장 경로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3-3-3’ 목표를 달성해야

하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3대 전략으로 ▲역동적 성장잠재력 복원 ▲한국형 경제발전전략 구축 ▲안정적 경제성장경로 확보 등을 제시했다.

주요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역동성을 회복하려면 시장원리를 근간으로 해 능력과 성과에 따른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무형의 내연화 등이 최근 우리경제가 지닌 주요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이 닫힌 성장판을 열고 중성장 경로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3-3-3’ 목표를 달성해야

그는 “한국경제가 공급으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이 미흡한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성장 전략은 선도형 모델보다 추격형 모델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며 “더불어 수출이 경제성장의 중심이 되고 내수가 경제의 안전판으로 작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 연구실장은 “신용확대를 통한 소비 진작의 폐해를 인식하고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실물 경제의 성장 속도를 넘지 않도록 금융 당국의 관리·감독 강화 노력이 요구된다”며 “자산 유통화, 주택 가격 상승 억제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에 묶여 있는 유흥성이 건전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 **서부신시가지 도청영**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삼덕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
- 📍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